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최선

임실군, 공정성·투명성 강화 위해 수의계약·공무직 채용 행정제도 개선

임실군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및 공무직 채용 인사 개선안을 마련, 행정제도 손질에 나섰다.

군은 20일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운용개선을 위한 분야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사업 신청 시 공공성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적용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수립한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경쟁 확대를 위해 1건 수의계약의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일괄 조정한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무실 공유사용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를 조사하기 위해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체 감사를 통하여 분할발주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 방식도 바꾼다.

군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인력 충원을 위해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 분야에 대한 필기시험과 체력 검사를 거치는 등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무직과 청원경찰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청사 방호, 시설 유지, 기술지원, 사무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공무직 직종으로는 사무보조원, 단순노무원, 기술원,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분된다.

군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을 통해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행정업무와 인력 충원 필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채용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무직 채용 방식을 필기시험과 체력 시험을 도입하는 내부 인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연 1~2회 정기 채용을 진행하고, 응시자의 기본적인 소양 여부와 자질이 검증된 인원 선발을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청원경찰은 체력 시험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심 민 군수는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분할발주 등 수의계약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투명한 행정제도를 마련한다"며 "또한 채용분야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객관적 인사원칙을 세워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청렴 실천 의지 다져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회의·고위간부 청렴서약식 개최

순창군이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기관장 주재 회의와 고위간부 청렴서약식'을 개최하며 새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순창군이 '제1차 반부패·청렴정책 기관장 주재 회의와 고위간부 청렴서약식'을 개최하며 새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2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염기남 부군수, 각 국실과소장 25명, 읍·면장 11명 등 총 37명의 고위직 간부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군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최영일 군수 취임 이후 강력히 추진해 온 청렴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회의에서 "청렴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자 군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청렴을 실천하고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군수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높은 청렴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설 연휴 병의원·약국 의료대응체계 유지

순창군이 설 연휴 기간동안 의료대응체계를 유지로 군민의 진료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군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순창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보건진료소 8개소, 병·의원 32개소, 약국 15개소를 설 연휴 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휴일과 야간 응급 상황을 고려해 365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도 운영된다.

순창읍 순창로 232에 위치한 제일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자정까지 전문 약사의 의약품 구입·상담 및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설맞이 따뜻한 마음 나눈다

남원시, 이웃돕기 계획 시행

남원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주위의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2025년 설 명절맞이 이웃돕기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월 17일부터 24일까지(8일간)를 이웃돕기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남원시 간부 공무원과 본청, 실·과·소, 읍·면·동 전 부서가 나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눌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25년 기획 설 명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계층 195세대에 가구당 10만원, 총 1천950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이 밖에도 한돈협회에서 돼지고기 140kg을 지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맞이 이웃돕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는 이와 같은 명절맞이 이웃돕기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명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웃돕기 후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063-620-6333)을 통해 문의·접수할 수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이웃돕기 추진 기간을 통해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행정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16일 자매결연지인 강서구를 방문해 직거래장터 행사장을 둘러보고,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실군, 서울 강서·마포·양천구 직거래장터 참여

임실군이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시 강서구(1.16~17), 마포구(1.22~23), 양천구(1.23~24) 등 서울지역 3곳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알리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16일 자매결연지인 강서구를 방문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임실군과 서울시 강서구가 199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온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행사에 이어 새해 설맞이 행사로, 임실엔치즈플러스터, 축협 등 임실군 관내 16개 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직거래장터를 통해 약 3억 7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임실치즈와 유제품, 육류, 한과, 장류, 조청 등 100여 품목이 준비되어 있으며,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한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이를 시중가보다 최대 25%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군은 행사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임실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임실군의 청정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이번 직거래장터가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촌 생산자들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임실호국원, 설날 참배객 맞이 준비 완료

국립임실호국원은 다가오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유가족과 참배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연휴를 앞두고 주변 환경 전반을 말끔히 단장하고,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확정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중이다.

유관기관인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와 협조해 성묘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경찰 및 국군 장병들의 지원을 받아 원내 교통통제 수행 및 호국원 주변 교통정체에 대비하고 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성묘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호국원↔임실역↔임실터미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참배가 어려운 유가족을 대상으로 헌화 및 참배를 실시하고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유족에게 전송해 드리는 참배대행 사진전송 서비스를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팩스(063-640-6081, 팩스063-711-1212)로 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농기센터,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가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딸기, 상추, 토마토 재배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교육은 2025년 기준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론교육은 3월부터 5월까지 총 50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내용으로는 스마트팜 이론, 창업설계, 마케팅 전략, 작물 재배법, 스마트팜 기기 운용 등 농업기술의 기초를 다지며, 실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원=김기두 기자